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2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마태복음 강해

비판하지 말라

(마 7:1-5)

우리가 다른 사람들, 특히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날카로운 비판의 소리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곧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다른 사람들이 했던 그 날카로운 비판의 잣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까 두렵습니다.

1. 비판에 대한 잘못된 해석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1절).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서 진리를 매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어”라고 하며 가만히 있는 것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건전한 분별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과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를 향해서 올바른 동기와 사랑으로 건강한 비판을 하는 것은, 건강한 역사를 세워 나아가는데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2. 하지 말아야 할 비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1절).
비판은 헬라어로 ‘크리네테’인데 이것은 비판이라기보다는 저주, 혹은 험담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틴 부버는 오늘날 인간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는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인한 관계의 위기”라고 했습니다. 관계들이 황폐해지므로 우리의 심령도 가정도 사회도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피폐해 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쉽게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정죄합니다.

3.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눈에 티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눈에 있는 티 좀 빼고 다녀라”고 말한다면 이거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약 4:12).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며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롬 14:10).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곧 각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부지중이라도 하나님을 심판의 보좌에서 밀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무 많은 비판과 정죄를 했고 험담하는 죄를 지으면서 황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포용하면서 친절과 기쁨과 소망과 세움과 치유의 언어만을 사용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Do Not Judge

(Matt. 7:1-5)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We must be very fearful if we sharply judge and criticize other people, especially, our brothers and sisters. We are all to stand before the fearful judge, God. When we look upon our sharp yardstick of judgment towards others, we must also look upon our judgment before God.

1. A misinterpretation of judgment

“Do not judge, or you too will be judged” (v. 1).
Jesus’ word, “Do not judge” is right, but it does not mean that we do not discriminate between right and wrong. It also does not mean that we denounce the truth by watching quietly falsehood. If we say that Jesus says, “Do not judge” to those who committed an injustice, and gently look at them, then this is the wrong position for God’s people to take who believe in His justice and righteousness.
It is necessary for us to have discernment. We must rightly judge towards an individual, community, society, and nation with right motives and love to establish right judgment.

2. The kind of judgment that we must not do

“Do not judge, or you will be judged” (v. 1).
‘Judge’ refers to ‘krinete’ in Greek which can be translated into curse or slander.
Martin Buber says, the greatest crisis in the present day is human beings encountering “the crisis of broken relationships by sharp judgment towards each other.” As their relationships become dilapidated, also our mind, family, society, and even church become destroyed. Nevertheless, we too easily fall into judgment, slander, and the blaming of other people.

3. The reasons why we need not to judge

If a person who is blinded by a plank in his own eyes says, “Take the speck out of your eyes and walk around!” to the other person, then it must be that he is the one who has done wrong.
“There is only one Lawgiver and judge, the one who is able to save and destroy. But you, who are you to judge your neighbor?” (James 4-12)
There is only one God who can judge men and this is God’s unique character and power. However, if we condemn and judge other people, we violate God’s Himself.
“Why do you judge your brother? Or why do you look down on your brother? For we will all stand before God’s judgment seat (Rome 14:10).
The Apostle Paul says that we all will stand before God’s judgment seat soon with a fearful and quivering heart.

My beloved Christians!

God is the only one who can judge. Even in an unconscious situation, we must never push God’s judgment seat aside. How long will we continue to live a devastated life by judging, condemning many other people, and committing sins through slander. Now, by embracing each other’s faults with love and using only kind, joyful, hopeful, praise worthy and healing language, I earnestly hope that you will be God’s people, living your life with Christ’s fragranc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오늘은 제495주년 종교개혁주일이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교회 정문에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이라는 제하의 95개 조항의 논제를 게시함으로써 16세기 종교개혁운동은 시작되었다.

경제성장과 함께 한국교회는 부흥을 거듭하였으나

각종 이단 종파들이 발생하여 정통교회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 한국교회의 장자적 역할을 맡고 있는 장로교회도 여러 교단으로 분열되어 그 리더십이 도전을 받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복음만이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개혁과 연합에 힘써야 할 때를 맞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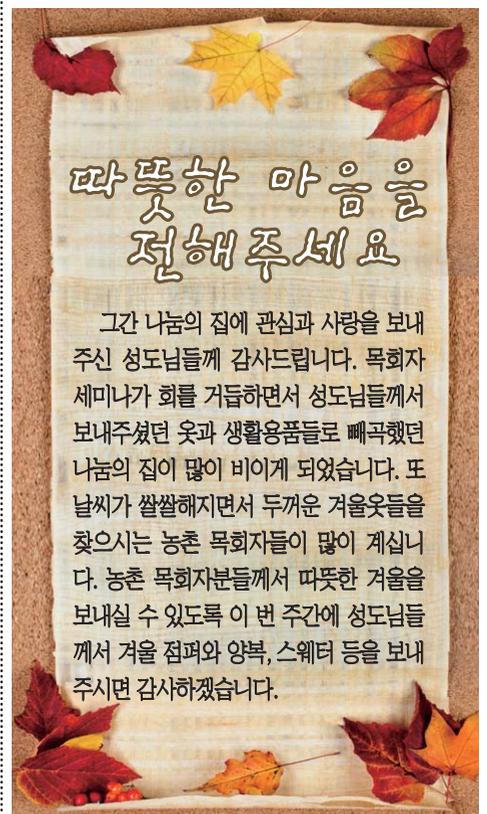
2012년 10월 학습·세례식 여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10월 21일(주) 찬양 예배 시 2012년 다섯번째 학습·세례식이 있었다. 서울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마28:18~20)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매년 짝수달(격월) 3째 주 수요일 12부 예배시에 학습·세례식을 거행하고 있다.(2012년도는 4월, 10월은 주일 찬양 예배시 시범 시행본 예식은 서울교회 3대 목표중 하나인 “천국시민양성”의 가시적 열매임과 동시에 본인에게는 신앙성장의 기회가 되므로 교구와 다락방 및 각 교회학교에서는 학습·세례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기 바란다. 사전교육 및 신청절차는 새가족부 세례준비반(607호)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례준비반 인터넷 카페(서울교회 홈페이지⇒ e공동체⇒ 세례준비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번 세례/입교/학습/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 <세례자> 김동범, 김선남, 김영표, 김용주2, 김일두, 박숙이, 박예주1 박재은2, 이무리2, 이성기3, 이원일, 정계순, 정진희1, 진중훈, 최보희, 최윤진, 황성희1 (계 17명)
- <입교자> 김신영3, 노주형, 진형민 (계 3명)
- <학습자> 박대서, 이상현3, 이은미4, 이현수2, 임선영2, 전숙진, 정동혁, 홍경아 (계 8명)
- <유아세례자> 김민서2, 이 도, 천보화 (계 3명) / 총 31명



탈북난민복송반대 및 북한구원을 위한 특별기도회

오, 하나님! 그들에게 자유를

‘제2회 탈북난민복송반대 및 북한구원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25일(목) 오후 2시 우리교회에서 열렸다.

자유를 향해 중국으로 탈북한 북한 주민들이 연이어 강제 복송 되어 수용소 감금과 고문, 총살의 위기에 처하자 지난 6월 한국교회는 ‘탈북난민 북한구원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김삼환 목사)을 출범하고, 3천인 목사단, 3천인 장로단, 3천인 여성지도자단과 해외 3천인 목사단을 결성하므로 탈북자들의 강제 복송 반대의 소리를 높였다.

이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제하로 설교한 이종윤 원로 목사는 “탈북 난민들이 피의 길을 걷다가 복송되고 있는데, 누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가. 강도 만난 우리의 동족을 돕는 사마리아인은 바로 교회가 돼야 한다. 교회가 강도 만난 이를 보살핀 주막의 역할을 감당해 탈북자들의 피난처가 돼야 한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이 운동이 교회로부터 불길 같이 일어나면 이 땅의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의 기틀이 반드시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탈북했다가 강제복송된 경험이 있는 요덕수 용소 출신의 김태진 선교사는 탈북자의 강제복송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며 하루속히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규정하여 저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또 지난 7월 하얼빈 공항에서 밀입국 알선죄로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구금돼 있는 전재귀 목사의 사모는 전 목사의 석방과 조기 귀국을 촉구해달라고 눈물로 호소 했다.

한편 이날 결성식을 가진 한국 3천인 목사단, 장로단, 여성지도자단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탈북민 강제복송 중단과 전재귀 목사 석방, 북한 내 인권개선, 개혁개방, 북핵폐기 등의 변화. 한국이 개최하는 WCC, WEA에서 확고한 복송반대 입장 표명,종북좌파 국회의원의 제명 등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독한 굶주림과 인권 유린으로 소망 없는 삶을 사는 2천만 북한 동족들과 중국에서 강제 복송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30만 탈북자들을 위해 우리는 진정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자. 허숙 권사(편집부)



사명자기도

영혼 구원의 사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짐에 따라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축복받은 한국교회로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이웃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세움을 받은 몸되신 서울교회, 많은 변화속에 세월이 지나 부흥과 성장속에 아주 건강한 청년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성장에 걸맞게 이웃을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섬기는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각자의 삶도 윤택해져 가는 모습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토록 감사할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소중한 역할도 잘 해 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금번 사명자대회 기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다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영혼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겠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영혼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스스로 고백하는 놀라운 열매가 맺힐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동만집사(제2스데반 회장)

종교개혁주일 특별기고

종교개혁의 후예들

교회는
세속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원중천 목사
(서울교회 협동목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로마카톨릭교회를 향하여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었고, 그것은 종교 개혁이란 대사건으로 이어졌다. 루터 자신도 자신의 행동이 종교개혁이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한 로마카톨릭교회 사제이었고 무명의 대학교수이었으나,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중세 로마카톨릭교회의 신학적 문제의 뿌리를 파악하고 있었다. 루터는 자신의 교구 안에 있는 성도들이 면죄부 매매의 피해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면죄부 매매의 잘못된 관행과 오류를 지적하고 그것을 상부에 보고하여 시정하고자 했던 것이다.

루터의 95개 조항의 내용을 알게 된 로마 교회 상부에서는 이 내용을 성실하게 다루려하지 않았고 교황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치부하여 입막음을 시도하기에 급급했다. 거기에는 로마카톨릭교회의 심각한 재정비리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으로 시작하여 천년 묵은 로마카톨릭교회의 온갖 문제들이 줄줄이 터져 나왔고 사제들의 윤리도덕적 타락과 성경을 떠난 교리적 오류들이 밝혀졌다. 교황은 루터를 이단으로 몰았으나, 종교개혁의 물결은 막을 수 없었다.

마침내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고 당시 유럽은 로마카톨릭교회의 분열이라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게 된 것이다.

5년 후면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일인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개신교도로서 그리고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몇 가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거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순종하려는 것이다. 그리하면 500년전 루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둘째, 한국 개신교회는 지금도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현재 개신교회의 도덕적 해이와 세속주의 성향은 500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너무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교회는 세속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한다.

셋째, 우리는 복음을 우리 신앙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한다. 복음은 신앙의 정수이고 성경적 진리의 핵심이다. 로마카톨릭교회는 복음에서 떠나므로 온갖 비리와 오류들로 넘치게 되었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개신교의 뿌리를 되짚어보며 우리 모두는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한다.

시명자 대회

VIP초대 새생명 축제의 영적 의미

오세광 목사 (VIP 초대 새생명 축제 담당)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려 아파하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잘 살펴보면 중풍병자가 치유와 죄 사함을 받기 위해 한 일이라곤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손에 이끌리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2012년 시명자 대회 기간 중에 “VIP 초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것처럼 영적으로 새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VIP들이 예수님 앞에서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VIP들을 치유시키고 새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시명자 대회 준비팀에서는 가능한대로 따뜻한 분위기, 열린 분위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IP들의 눈높이에 맞게 찬양도 말씀도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을(VIP) 서울 교회로 “데리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새생명 축제의 영적 의미입니다. 오늘, 이번 주 VIP들에게 작은 선물하나 준비해서 그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선물 하나가 한 영혼을 구하는데 쓰임 받는 오병이어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경로대학

즐거운 경로대학

박인자 집사(살림 경로대학 교사)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셔서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고 아무런 보잘 것 없는, 평소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선적 없고 조용히 지내며 살던 저를 경로대학 체조 교사로 쓰임받게 해주셨습니다. 두렵고 걱정된 마음으로 기도하니 찬송가 310장의 가사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가 떠올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주 목요일 권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스트레칭 동작을 같이 하면서 즐겁고 보람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상반기 프로그램이 끝나고 어느덧 이제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생각하니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귀하고 본받고 싶은 어르들이었습니다. 목요일이 기다려지고 만나면 반갑고 또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안부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경로대학을 접하지 않았을 땐 몰랐던 서명철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장님, 여러 임원진들, 교사들... 8층 식당에 올라가선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권사님 모습을 볼 때마다 고개가 절로 숙여져 나도 저렇게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경로대학은 참으로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여러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 다 참가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진작 관심을 갖고 참여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 뿐입니다.

11월 4일 주일 오후 3시(웨스트민스터 홀 101호)에 그동안 배워왔던 솜씨 자랑 발표회를 엽니다. 우리교회의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그 날 많이 오셔서보시기 바랍니다.



성경100독을 마치고



강애자 권사(8교구)

부족하기 짝이 없는 여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금번에 성경 100독을 달성하였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100독을 했고 올해 들어서는 12독째였으니까, 해마다 최소한 5번씩은 읽은 셈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어서 드러내어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요즘은 성경을 잘 읽지 않는 성도님들도 많은 것 같아서 부족한 제가 말씀을 많이 읽은 것이 도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보다 '맛'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말

씀의 은혜로 인해 믿음생활 하는 맛이 생기고 살맛이 생겼습니다. 세상살이가 너무나 힘들어서 힘들고 지쳐서 곧 쓰러질 것 같은 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어냈습니다. 많이 캄캄하고 좌로나 우로나 모든 것이 다 막혀서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져있는 바로 그때 다시 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으로 오늘도 힘차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서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송이꽃보다 더 달디단 성경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암송대회를 마치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김영비 (성경암송대회 대상, 초등부)

성경말씀 암송범위(빌립보서1-4장)가 정해지고 막상 준비하려고 하니 머릿속에 이런 저런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못한다는 핑계를 찾아보았지만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이유가, 5학년이 되면서 초등부 특활 성경반에서 공부 중이었으며, 유치부 때부터 엄마의 기도제목이 하루30분 이상 성경말씀 읽고 기도하기였는데, 저는 그 시간을 말씀암송으로 대신하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암송이 술술 되지는 않았습다. 어떤 때는 머리가 쿡쿡 아프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했

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동안은 중요한 공부와 시간이 맞물려서 온힘 다해 하는 중에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아~! 하나님께서 저의 지금과 미래에 중요한 일들이 들쭉, 셋씩 한꺼번에 밀려와도 넉넉히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 이번 성경암송을 하게 하심을 가슴 깊이 느끼며, 우리 가족은 기쁨이 두 배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힘이 났고, 주님과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암송 중 도전 받은 말씀, 빌2:15) 되어 살겠습니다.^^

꼬~옥 약속합니다. 예수님♥
생각만 해도 즐거운 초등부 형제들, 기도와 말씀 주신 전도사님, 격려해주신 여러 선생님, 어디서든지 만나면 관심과 칭찬 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해 환한 미소를 띠우시고 사랑을 듬뿍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 드리며,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2012 성경암송대회 수상자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28일(주) 광주광역시 장로교협의회주최 종교개혁기념주일연합예배 특강을 한다. 11월1일(목) 종교개혁 500주년기념사업회 기금모금행사를 주관한다. 11월3일(토) 사랑의쌀 운동 조찬기도회, 울란바타르대학 이사회에서 각각 설교한다.
- 이갑진 장로 10/31-11/3 캄보디아 기독교인 제자훈련 강사로 출장(서울교회가 설립한 캄퐁초상 교회 이재울선교사와 함께)
- 이사: 12교구 박두호장로 · 한성옥권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1002 코아루 아파트 401-701
- 개업: 3교구 손환구 집사(순회청성도 이신정 권사 아들) 법무법인 제이앤에스 역삼동 832 에센타워7층 02-2009-9860
- 승진: 13교구 김관규 집사(윤혜련 권사) 10월22일 타타 대우 상용차 사장
- 독창회: 12교구 심상희권사 10. 31 PM18:30, 갤러리아센터서티아트홀G (천안시 불당동)
- 득녀: 6교구 배기훈 집사 남미희 집사
- 주간식당봉사: 엘리야선교회(10.28) 모세선교회(11.4)
- 금주의 식사: 강영건 성도 · 박은미 집사 가정 (자녀결혼 감사하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회 기금 후원 행사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사업계획

1. 명저번역 출간사업
2. 학술연구사업
3. 소책자 출판보급사업
4. 학술대회개최사업(매년 봄, 가을 2회개최)
5. 강연회 개최사업(교단별, 신학교별, 지역별개최)
6. 교회연합운동의 인프라 구축사업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완수하기 위하여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에 기금조성을 위한 후원회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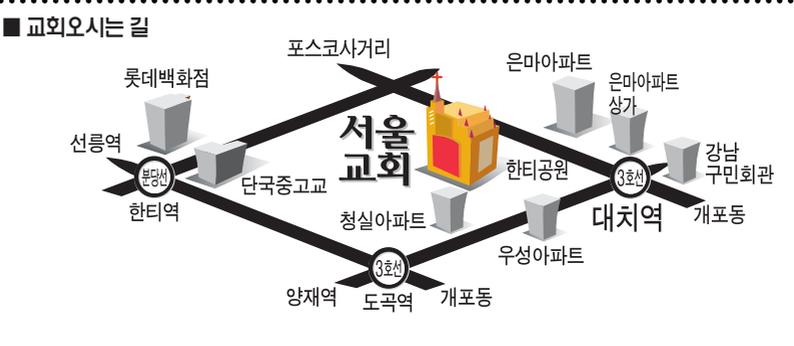
* 일 시 2012. 11. 1(목) 17:30-21:00
* 장 소 해군회관 (영등포구 신길7동 101-1 Tel:02-841-4114)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12 사명자대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도록
2. 온 가족이 함께 하는 토요일새벽기도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향신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소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3.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이상 전도대상자(VIP)를 정하고 11월에 있는 VIP초대 새생명축제로 인도할 수 있도록
4.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더욱 오직 말씀과 은혜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서울교회QR코드